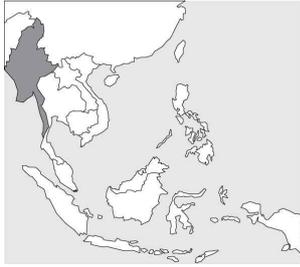


▣ **줌인 동남아시아** ▣  
**Zoom-In Southeast Asia**



**각꾸:**  
**빠오족의**  
**불교 유적지**

Kakku:  
The Buddhist Heritage  
of Pa-O People

박장식\*  
Jang Sik PARK

최근 동남아시아의 문화, 특히 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태국 방콕의 서점가에 들러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과거 정치,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출판되었던 서적들 사이에 예술, 종교, 회화, 벽화, 전통공예, 식물 등의 주제를 지닌 책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연구되리라 기대할 수 없었던 내용도 많이 있다. 게다가 캄보디아의 앙코르 유적을 필두로 일반 대중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각지의 유적지, 관광지에 관한 소개서도 엄청 쏟아져 있었다. 한참을 머물다 보면 어느 듯 내 품에는 한가득 책들이 안겨져 있고, 어떻게 무거운 이 책들을 가져갈지 대책도 없이 숙소로 가져가고 있다.

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남아에서 예술이란 서양의

\*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 교수, jspark@pufs.ac.kr

개념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통적 서구의 개념에서 보면 예술(art)이란 인간의 고급문화 영역에 속하는 것만을 지칭한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마주치는 것에는 감히 그 고귀한 예술이란 명칭은 붙이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갖 기물을 일컬을 수가 있게 되었고, 단지 물건만 아니라 그 제작 과정이나 그 속에 담긴 정신도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생활 용도의 기물을 제작하는 공예(craft)도 확연히 예술과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예술이란 이제 전지전능한 포괄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특히, 동남아에서 예술은 거의 종교적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감히 추론하건데, 동남아에서 종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순수예술 분야의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아주 현대적인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동남아의 예술을 이해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곳 종교와 신앙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동남아에 오래 전에 전래된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외에 그곳의 전통적 신앙을 이해할 수 있다면 동남아 예술을 음미하는 일은 매우 쉬워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시시해 보이거나 그게 그것이라는 애착의 정이 점점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 동남아 관광은 한 낮의 진수를 놓치고 밤 문화에 빠져드는 재미를 더 선호하는 지도 모를 일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려는 미얀마 산주 빠오족(Pa-O)의 거주지역에 있는 깍꾸(Kakku)<sup>1)</sup>의 불탑군도 자칫 잘못된 이해로 그 가치를 상실될지 모를 일이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니 여기서 안내해보고자 한다. 유명한 인레 호수를 지나 산주의 주도인 따웅지(Taunggyi)의 남쪽 약 40km에 위치한 깍꾸는 최근에 외부 관광객의 접근이 허용되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갈 수 없던 곳이었다. 미얀마 군부와 소수 종족 빠오족의 무장집단이었던 빠오족기구(PNO, Pa-O National Organization)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출입이 허용되었던 곳으로 미얀마인들도 거의 가본 적이 없을 정도이다. 이곳이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높이 4m 정도의 불탑이 거의 2700기 가량 축조되어있는

<sup>1)</sup> 미얀마어의 발음으로는 '깍꾸'이지만, 빠오어로는 '각꾸'이므로 이 글에서는 깍꾸로 표기한다. 빠오어로 깍꾸는 1주일에 한번 서는 장터의 의미로 과거에는 아마도 이곳이 7일장이 열리던 곳으로 추정된다.

그야말로 스펙터클한 광경 때문이다. 미얀마의 고도인 버강(Bagan)을 가본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한다면 버강의 축소판이라고 감탄하게 될 정도이다. 각꾸에 다다르면 우선 사원 입구 양쪽에 펼쳐져 있는 보리수의 숲과 그 사이에 수많은 파고다 군집이 방문객의 시야를 압도한다. 도대체 이렇게 먼 오지에 그 엄청난 사원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에 신비감을 더하게 된다.

각꾸까지 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교통수단을 구해야 하고, 이 지역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PNO 소유의 Golden Island Cottages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레 호수나 따웅지에 있는 빠오출입관리소(Pa-O Collective Office)에 들러 입장료(일인당 3달러)를 지불하고 동반하는 빠오족 가이드(일인당 5달러)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지도상으로 보면 따웅지에서 각꾸까지는 철도가 놓여있지만, 외부인은 이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승용차로 가야한다.

이제 갈 준비는 끝난 셈이니 두 차례에 걸친 검문소를 통과하면 빠오족의 거주지가 시작된다. 군데군데 도로가 손상된 곳이 있지만 그



<그림 1> 각꾸의 사원 입구 모습. 정문 위에 '므웨도꺄꺄제디'라고 미얀마어로 쓰여져 있다. '므웨도'란 붓다의 성물(聖物)이란 의미로 이곳 사원에는 그 유물이 헌납된 곳으로 보인다.



<그림 2>  
빠오족 현지 가이드. 빠오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었는데, 머리에 독특한 모양의 두건은  
빠오족 여성임을 한눈에 알아보게 한다.

래도 포장된 것이라 우기에도 크게 지장 없이 갈 수 있다. 가는 도중에 빠오족의 생활 면모를 엿볼 수 있고, 빠오족이 주로 경작하는 마늘 경작 풍경도 눈에 자주 띈다. 따웅지에서 약 40km의 거리라고 했지만, 역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1시간 반 가량이 소요되는 것 같다. 우기에는 2시간 이상 잡아야 할 것이다. 깡꾸에 가는 도중 동승한 빠오족의 가이드는 유창하진 않지만 영어로 이런저런 설명을 곁들이고 방문객의 질문에 아주 착실히 답해준다. 빠오족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이렇게 가는 도중에 해결할 수 있으니 가이드 사용 의무가 꼭 나쁘지 않은 아닌 것 같다.

깡꾸에 도착하면 큰 보리수의 군집을 우선 보게 되고 차량에서 내리면 왼쪽에 장엄한 사원군의 광경에 압도하게 된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미얀마에 도착해서 흔히 보았던 파고다와는 다른 아주 작은 사이즈의 파고다가 수도 없이 앞을 가로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확히 4.5m 정도의 높이라고 보면 되는데 크기는 별 것 아니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수가 2700기가 있다는 것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최근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파고다 사이에 포장된 관람도가 깔려있고, 무너진 파고다를 새로 세우고 부서진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 붙인 자국이 선명하다. 이를 두고서 무턱대고 유적에 함부로 손을 대어 망쳐놓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외국 관광객이 많지만, 이는 미얀마의 불교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새로운 파고



<그림 3> 사원군의 내부로 들어가면 사진에 보이는 풍경은 어디서든 시야에 들어온다.

다를 짓는 일은 미얀마 불교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파고다를 보수하는 일도 굉장한 공덕을 쌓는 것이기에 미얀마 도처에서 파고다 보수의 흔적을 보는 일은 흔하다.

이곳 사원군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미얀마 역사학자 탄툽(Than Tun)에 의하면 파고다의 유형으로 판단하건데 공바웅 왕조의 보도피야 시대인 1800년 전후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의 전설에 의하면 기원전 인도 아쇼카 대왕이 파견했다고 여기는 불교선교단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그림 4>  
사원 외부의 조각상들의  
두상은 모두 최근에 보수된  
흔적이 보인다.  
재료는 홍토석이다.

도 하지만, 사원의 유형을 볼 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다만 그 지역 사람들이 확실히 믿는 것은 이곳에 붓다의 성물이 봉헌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그 성물은 주로 붓다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용기나 기물이라고 한다.

파고다의 건축 재료로 벽돌이나 홍토석(laterite)이 주로 사용되었다. 벽돌은 석재가 귀한 미얀마의 주요한 건축 재료이며 전국에 걸쳐 벽돌이 가장 많이 쓰인다. 홍토석은 황토가 지면 속에서 단단히 굳은 것으로 진한 황토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원의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된다. 앙코르 유적지에서는 사암(sandstone)을 사용하지만, 내부 공벽을 채우는데 홍토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홍토석은 단단해서 내부 자재로 사용하기 안정맞춤이지만 습기에 약하고 외부에 노출되면 잘 부서지고 시커멓게 변하기 때문에 부조나 조각용으로는 부적절한 재료이다. 석재가 귀한 미얀마에서는 치장 기술을 발휘할 수 없는 벽돌 대신에 그나마 외부 장식용으로 홍토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다. 홍토석이 귀한 지역에서는 벽돌 외부에 회반죽(stucco)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도 회칠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회반죽은 장식 가공은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습기에 약해서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동남아에서는 좋은 자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외부 벽면을 가공할 만한 적절한 석재가 귀한 곳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앙코르의 초기에도 사암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회반죽이 외벽을 치장하는 재료로 주로 사용되었다.

높이가 4~5m가 되는 파고다의 유형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산족의 타입이다. 산주를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버마족이 주로 거주하는 중앙 평원지역의 파고다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금방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산 고원의 파고다는 크기 보다는 개수가 많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작은 사이즈의 파고다는 견고성이 떨어져 사실 오래 가지 못한다. 인레 호수 동쪽에 위치한 인데인(Indein) 유적지에도 깎꾸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의 파고다를 만날 수 있다. 역시 그곳의 파고다도 산족의 타입이며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파고다가 제법 있다. 이곳은 깎꾸와는 달리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나 지역이 없는 것 같다.



<그림 5> 인데잉의 사원군, 금방 무너져 내릴 듯한 파고다가 무척 많다. 외형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산족 타입이며 각꾸의 파고다와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인데잉과 각꾸에서의 파고다의 감상 포인트는 전혀 다르다. 각꾸의 파고다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쉽게 올 수 없는 곳인데 대충 바라보고 그 규모에만 감탄하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쉽고, 지불한 비용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여행이 아닌가? 파고다 하나하나에는 여러 의미가 숨겨져 있다. 보도퍼야에 의해 착공되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파고다 외벽 곳곳에 버마족 머리 모양을 한 조상이 제법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위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왼쪽 여성과 오른쪽 남성 두 명은 영락없이 버마족의 의상을 하고 있다. 산족이라면 바지를 입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붓다의 전생을 그린 자타카의 스토리가 외벽을 치장할 법도 한데 여기서는 힌두교의 신화들도 제법 나온다. 흔히 알고 있는 라마야나의 장면도 나온다. 람과 그를 돕는 원숭이 하누만의 모습도 찾을 수 있다. 버마족의 파고다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그림 6>  
람이나 하누만의 표현으로 보아 가공기술은  
매우 떨어지지만, 파고다의 외벽 치장으로  
라마야나의 소재가 사용된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물론 현지 가이드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지식을 갖춘다면 깡꾸로의 여행은 충분히 즐겁고도 남음이 있다. 2700기의 파고다를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어도 서로 다른 외양을 보고 즐기는 재미는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불자라면 이 엄청난 규모의 사원군을 건축한 사람들의 신앙심과 그들이 품었던 바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